

“희망찬 익산의 미래 준비해 나갈 것”

김철모 익산 부시장, 취임 1주년 맞아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이 14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부시장은 1년 동안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추진하고, 익산의 대표적인 양대 축재인 국화축제와 서동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설장비와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는 등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특히, 익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청사 신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을 비롯해 익산시가 올해 사상처음 예산 1조원시대를 여는 데에도 크게 일조하며, 전문행정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의 후생을 챙기는데도 솔선수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책에 힘썼으며, 불필요한 형식을 버리고 직원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어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한편 평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으로 소문난 김 부시장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에 주력하면서 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갔다.

김철모 부시장은 “취임 1년 동안 조직의 안정과 화합, 생동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익산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을 통해 밝고 희망찬 익산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공무원 시인으로도 유명한 김 부시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시 '귀향19'를 통해 문학대상인 설중매문학상(붉은매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 또, 개인 블로그에 신작 발표와 시 낭송회 참가 등 작품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

임실경찰서, 경찰서장과 함께하는 여경 오찬 간담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14일, 경찰서 여경 10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고충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배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경찰서장과 함께하는 여경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광호 서장은 "경찰 업무에서 여직원들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근무하는데 있어 고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영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정읍시농업기술센터, 태인면 일손돕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기술지원과)과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태인면 분동마을에서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85명의 양 기관 직원들은 아 참깨 모 심기와 복분자 순 따주기 등의 일손을 도왔다. 더불어 마을회관과 마을 집안로에 등에서 비닐과 강풍 등을 수거하며 정화활동을 펼쳤다. 특히 거름주기와 병해충 방제 등 다수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 기술 교육도 가졌다. 분동마을은 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의 자매결연 마을이다. 직원들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가짐은 물론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꿈과 희망 있는 농촌 마을 가꾸기에 동참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전주시 다문화 가족지원, 상호 업무지원 협약 체결

전북지방우정청은 14일 7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 전북거점센터(센터장/이지훈), 전북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협회(협회장/박주철)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계구축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소통문화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지훈 전북거점센터장은 "우리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인식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체국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노력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다문화가족과 우체국 네트워크를 이용한 편지쓰기를 통해 우리사회의 소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이에 우체국과 지자체와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지원협약서에는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편지쓰기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소통증진에 협력 △우체국 금융, 우편상품 등 우정사업 협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영태 기자



군산시, 아동수당 사업 담당자 및 보조인력 교육 실시

군산시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4일 시 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분청과 읍면동의 아동수당 담당자 및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만 0세~만 5세(0~71개월) 아동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 지급한다.

이날 교육은 아동수당 사업 지침교육을 시작으로 아동수당 신청 및 접수 시 유의점 등을 설명해 아동수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필요사항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아동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동수당 사업의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아동수당 사업 시행에 따라 시에서는 아동수당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아동수당 보조인력 24명을 6월중에 선발했으며 선발된 보조 인력은 대상아동이 많은 13개 읍면동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는 아동수당의 집중신청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가구 별로 안내문 발송, 어린이집, 유치원, 산부인과, 소아과 리플릿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18일부터 9월 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익산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18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998.4.11.) 이후 건축행위가 존재한(신·증·개축·대수선·용도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1,600여 개의 건축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16명의 전수조사요원을 공개채용 선발 후 지난달 30일 합동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토대로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내부 항목을 2인 1조의 조사요원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전 세계 클린월드운동'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익산에서 '클린 월드운동'을 펼쳤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복지단체는 "깨끗한 환경은 행복한 삶의 바탕"이라는 신념으로 세계 곳곳에서 클린월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올해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이 있는 6월에 개최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 클린월드운동이란 각자가 속한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직접적인 실천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환경복지운동이다.

위러브유 관계자는 클린월드운동에 대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날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서천, 부안 일대 위러브유 회원 및 가족, 친구, 지인 등 440여 명이 익산시 배산공원 일대를 맡김히 정화했고 익산시청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아 2시간여 동안에 걸친 정화활동 끝에 100L 쓰레기봉투 80개 분량의 쓰레기가 대량 수거됐다"고 덧붙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